하나님 제치기 쓰리콤보 죄악

(이사야 59:1~21)

1.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제치기 쓰리콤보 죄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제치기 쓰리콤보 죄악'
하나님을 제치는 것이 죄악이고 이 죄악은 항상 쓰리콤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죄악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2~3학년 동안을 한 담임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분이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신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영어 독해에 대해 항상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물 흐르듯이 영어를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가 한국어와는 어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은 주어, 주격보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I am a student.'로써 주어, 동사, 주격보어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한국어 문장을 만든 후에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영어를 단어대로 끊어서 한국어 뜻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순은 뒤죽박죽이 되겠지만 인간의 언어능력은 그럼에도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방식대로 해서 덕을 봤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에 갔고 저의 집사람은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도 없을 때였기에 집사람도 독일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일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학 코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

안을 배웠는데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집사람에게도 가르쳐주었습니다. 독일어를 듣고 써야 하니까 단어 순서별로 한국말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4.3점이 만점인데 보통 독일 문화원에서 일정 과정을 마치고 유학 오는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3.8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사람이 4.1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성과입니다.

인생도 이 공부법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면 됩니다. 한국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번역하려고 하면 영어가 힘들어집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할지라도 주어지는 순서대로 한국어를 대입하다보면 해석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에게 먼저 마음을 주면 됩니다. 그 대상은 나의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몸이나 돈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몸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면 내 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에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간섭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존재의 순서대로 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펼쳐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성은 당신이 펼치시고 성취하시는 일 중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만드시지 않습니다. 항상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마귀가 개입하여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상한 체질이 생겨버렸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완벽하게 영어 문장으로 바꾸기라도 하려는 듯이 순서를 무시하여 하나님을 제쳐두게 됩니다. 순서대로라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놓여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두니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내 책임이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에서 쓰리콤보 죄악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한 가지가 세 가지 죄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쓰리콤보의 죄악으로 인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배우자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괴로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쳐둠으로써 생겨난 쓰리콤보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녀 때문도 아니고 건강이나 돈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에 행복이 없는 이유는 쓰리콤보 죄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로결석으로 바닥을 구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암과 출산과 요로결석이라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집사람

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그 칼로 배를 째서 돌을 꺼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를 때에도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앞서 보았던 56장에서는 이방인과 신체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의 기준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취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게 된 죄악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의식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식을 하면서도 마음에 세상을 담는 타락 한 금식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집중과 몰입'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조과정의 맨 마지막에 지음 받은 아담이 의식을 가지고 눈을 뜬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아담은 아직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사였으며 하나님이 첫 번째 일이었고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아담이 지속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안식일의 취지를 잣대로 남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악만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앞에 나온 '너희 죄악'은 히브리어 '아원 테켐'으로써 '뒤틀리다 혹은 구부리다'라는 뜻의 아원(עָוֹן)을 어원으로 두고 있는 말입니다. 앞서 보았던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할 때의 죄악이 바로 이 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너희 죄'는 하타아입니다. 이는 하타(חָטָא)에서 나온 말로써 '표적을 놓치다, 빗나가다, 길을 잃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쳐둠이 본문에서 두 가지 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틀림입니다.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피하여 다른 대상에 관심을 갖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대상을 붙잡기 위해서 마음은

뒤틀리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아원과 하타로 표현된 죄입니다. 즉 아원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허물은 페샤(פֶּשַׁע)로써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이 벌면 기쁘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기쁜 마음을 얼핏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원-구부러지고 비틀리는 것, 하타-다른 표적에 맞는 것, 페샤-기쁨을 위한 반란이 쓰리콤보로 뭉쳐서 등장합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쓰리콤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피해가는 이유는 다른 대상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대상을 붙잡는 이유는 그것이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반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피하고, 붙잡고, 기쁘리라 믿는 쓰리콤보의 죄악으로 살아갑니다.

앞서 보았던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쓰리콤보의 죄악입니다. 교인들이 쓰리콤보의 죄악을 안고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깨뜨리지 않고 묵인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상태로 주일날 교회를 찾아옵니다. 걱정이 많은 이유는 사업이 잘 되어야 기쁘리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피해가야하기에 구부리고 뒤틀리는 아원의 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붙잡음을 통해서 표적에서 빗나가는 하타의 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기쁨을 주리라 믿기에 반란을 일으키는 페샤의 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을 제쳐둔 채 이 쓰리콤보의 죄를 안고 앉아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29장 13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결코 이 쓰리콤보의 죄악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 걱정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자식 걱정을 안 합니까? 살다보면 배

우자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정상으로 보고 복음을 전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라고 합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것이 부모로써 당연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쓰리콤보 죄악의 자리에 눌러앉았기에 자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이유는 자녀가 기쁨이 되리라고 믿는 반란을 일으키는 페샤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자녀보다 더 가까이 와계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비틀림인 아원의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하나님 대신 자녀를 붙잡는 표적에서 빗나가는 하타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뒤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는 내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기가 막힐 정도로 참혹한 죄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고 하였습니다.
손에 피가 묻는 이유는 배우자나 자녀를 내 손으로 만질 때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자녀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일이 피를 손에 묻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죄악의 쓰리콤보를 가지고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이 되고 혀에서는 악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9~10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비교를 한 번 해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왜 야곱은 인생을 험악하다 하였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야곱은 에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던 것과 같은 삶의 태도를 거의 평생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제쳐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제쳐놓았습니다. 결국 남자 60만 중에 두 명을 빼고 모두 죽고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

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제치고 산 선민들이 결국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조차도 죽이고야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제치고 살 것도 아셨기에 이들을 역이용하셔서 구원사건을 이루신 것이지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쓰리콤보의 죄악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보았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양이 목자 뒤에 따라오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푸른 초장이 아니니 다른 데로 가자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목자를 욕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양이 스스로의 비전을 가지고 목자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볼 수 없는 양은 그저 목자의 소리만 듣고 목자만 바라볼 뿐입니다.

다윗의 삶도 야곱의 삶과 비교해 보면 만만찮게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치지 않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에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칠 때에 창세기 28장 13~15절에 "...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았습니다. 쓰리콤보 죄악에 주저앉고 말았기에 늘그막에 삶이 험악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쓰리콤보의 죄악은 끝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죄악, 다른 것을 붙잡는 죄악, 세상에서 기쁨을 찾겠다고 반란하는 죄악이 쓰리콤보의 죄악입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표현되는 대상이지, 그것들은 결코 내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내가 기쁨을 캐내야 하는 광산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생겨난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 화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남편이 포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제쳐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강을 잃지 않았던 이유 또한 하나님을 제쳐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어떻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제쳐두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죄의 쓰리콤보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죄, 배우자를 붙잡는 죄, 배우

자에게 기쁨을 기대하는 죄가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업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피했고, 돈을 붙잡았고, 돈이 기쁨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제치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제치면 죄악의 쓰리콤보가 이루어집니다. 이 쓰리콤보의 죄악을 가진 채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나 집사가 되기도 합니다. 선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을 제치고 사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을 제치고 죽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치고 쓰리콤보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의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건강 때문에 괴롭고 걱정이 된다면 쓰리콤보의 죄악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고, 건강이라는 표적을 붙잡은 것이고, 건강이 기쁨이 된다고 믿는 쓰리콤보의 죄악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음에는 나의 몸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려져 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몸을 고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대로 죽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든 죽든 동일하게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이 계속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겨우 늘그막에서야 이 쓰리콤보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중에도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쳤느냐 따르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꾸 쓰리콤보의 죄악을 반복하려는 유전적 죄악의 체질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제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끊임없이 질기게 무섭게 집요하게 쇠심줄처럼 반복되어온 하나님 제치기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죽음으로써 하나님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